



의정부주보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홈페이지 www.uca.or.kr • 전화 031-850-1400(대표)

124위 복자

복자 고성운 요셉

(? ~1816)



‘성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운 요셉은 충청도 덕산의 별암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 본디 성품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형 고성대 베드로와 함께 성경을 읽고 이웃에게 신앙을 권면하며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후 형과 함께 경상도 청송 노래산으로 이주한 그는 1815년 2월 22일경 교우들과 함께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경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것이 바로 을해박해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포졸들을 도적으로 오인하여 신자들과 함께 저항했으나, 관청에서 파견된 이들을 알게 되자 저항을 멈추고 어린양처럼 양순해져 가장 먼저 포승을 받았다. 형과 함께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대구로 이송된 그는 온갖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증언하였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 형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그는 미혼이었으며, 형장 인근에 묻힌 시신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거두어져 안장되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28주일 · 군인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이사 25,6-10ㄱ

화답송

시편 23(22),1-3ㄱ,3ㄴㄷ-4.5.6(◎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필리 4,12-14.19-20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태 22,1-14 (또는 22,1-10)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중에서도 갈라티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간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양보의 여지 없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오직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티아서의 후반부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5,4)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 갈라티아서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5,6)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 자유, 믿음, 사랑, 행동.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율법은 “감시자”(3,25), 길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동하는 사랑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자유를 사랑으로 방향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5,16)라고 말합니다. 신호등 같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성령은 길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5,22)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유로워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씨앗과 같은 성령이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여러 열매들을 맺습니다(5,22-23 참조). 그렇지요, 그 열매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나 사

랑은 인간이 애써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일은 율법 조항 몇백 개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 못지않게 사랑하라는 계명에 짓눌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성령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5,16).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도 있고, “육(肉)의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육이 있으니,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육의 욕망”도 우리 안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기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착각이겠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5,13).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유롭다면, 그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은총을 청합시다. ☺



마리아의 종속적 구원 임무

「교회헌장」 제62 항

「교회헌장」 제62항은 61항 끝의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라는 언급을 이어받아 ‘어머니 임무’가 지닌 종말론적 특성을 조명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모성은, 이 세상에서 주님 탄생 예고 때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아래서도 견고히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 시작되어 천상 세계에서 선택된 모든 이들이 영원히 완성되는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에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구원의 임무를 계속하시어 당신의 전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모성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넷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어 하느님 나라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임무로 말미암아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이러한 호칭이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60항 참조)의 존엄과 능력에서 아무것도 떨어내거나 덧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아드님에 대한 유비로서 마리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조물도 강생하신 말씀 곧 구세주와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듯, 또한 하느님의 유일한 선성(善性)이 피조물들 안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퍼져 나가듯, 구세주의 유일한 중개 역시 피조물들이 그 유일한 원천에 참여하는 다

양한 협력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불러일으킵니다. 공의회는 마리아의 이러한 역할을 ‘종속적 임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종속적 임무를 의심 없이 믿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체험하며, 신자들이 어머니의 도우심과 보호로 유일한 중개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마리아를 가리켜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그 무엇도 결코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으며, 스스로를 늘 아드님의 제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유일한 중개에 종속적 임무를 지닌다.
_ 페루지노의 〈십자가 아래의 마리아〉 1482년

구세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므로 이 호칭은 결코 중복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에 종속된 마리아의 역할을 설명할 때, 그분의 협력을 규정하고자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리아를 구속과 은총 활동에서 가장 뛰어난 협력자로 공경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제13회 삶의향기 공모전 수상작

평화와 화합

아들의 작은 손, 하느님의 목소리

“아들과 공부하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지난 4년간 고해소에서 나는 똑같은 잘못을 고백했다. 지난 판공성사에서든 그랬다. 신부님께서 되물어 보셨다. “아버지는 공부할 때 집중을 잘하셨나요?” 차마 그랬다고 답하기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속을 썩이는 아들은 아니기도 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신부님은 다른 질문으로 되물어보셨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아버지는 공부 잘하셨나요?” 또다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렸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실, 이 고해소에는 아버님과 비슷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일 거예요. 고해소에 앉아 있는 저도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보면 알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특히 그렇고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들도 아파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기를 바라겠죠. 그런 모습을 하느님께서도 원하실 거고요. 자녀하고 공부하시느라 애쓰셨어요. 보석으로 아들을 한 번 꼭 안아주세요.”

신부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지막이기를 바랐다.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 옆에 앉는 시간이 유

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들을 꼭 안아주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묻게 되었다. 아들의 성적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기대였을까.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들은 야단을 맞고 잠자리에 들면 내 이불 속으로 손을 쏙 넣어 내 손을 잡으려고 한다.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하느님만 아실 것이다. 고해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아들의 이불 속으로 손을 쏙 넣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속삭였다. “이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아들과의 공부는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다시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마다 신부님의 따뜻했던 격려와 내 이불로 들어오는 아들의 작은 손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한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떠올린다. 집중하지 못하던 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는 하느님이 우리 아들 속으로 들어와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때마다 또다시 기도한다.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빠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

이학호 세례자요한 _ 마두동 성당

내 안의 나와 화해하는 길,

은총의 그늘 아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갈등은 타인과의 대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와 의 싸움일지 모릅니다. 내 안에는 늘 두 사람이 살아갑니다. 기꺼이 봉사하고 싶으면서도 편히 쉬고 싶은 나,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내 삶을 먼저 챙기고 싶은 나,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합니다.

저는 본당에서 봉사하며 큰 보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생겨난 갈등은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원망은 급기야 신부님에게로 향했고, 참았던 감정은 차가운 말로 상대를 상처 입혔습니다. 신부님의 말씀과 행동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제 상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10여 년의 봉사 생활을 뒤로한 채 성당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제 마음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우회술을 포함한 10시간의 대수술이 필요했지만, 심장효소 수치가 너무 높아 당장 수술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삶을 지탱하던 모든 자신감과 의지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일을 제힘으로 해결하려 애썼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버티는 것이 '강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막막한 심연의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눈물을 하느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힘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 안의 또 다른 나는 성당에 도움과 기도를 청하라고 속삭였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쓰

러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제 알팍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다시 자존심이라는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저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제가 쳐둔 자존심의 벽보다 높았습니다. 한 자매님이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 본당 곳곳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효소 수치가 빠르게 떨어졌고, 미뤄질 것만 같던 수술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성당을 멀리했을 때도 공동체는 여전히 저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하느님을 떠나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느님께서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남편은 살아났고, 저는 제 안의 완고했던 또 다른 나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등을 돌렸던 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이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이 곁에 살아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힘겨운 현실에 답답해하는 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왔는지 묻고 싶은 나. 오늘도 저는 이 두 모습의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화해한다는 것은 갈등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임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매일 흔들리는 삶이지만, 저는 오늘도 저를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분이 주신 은총의 힘으로 제 안의 또 다른 나와 손을 잡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

신인정 아나다시아 _ 관산동 성당

작은 마음으로 피어난 평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초등학교 4학년이던 나는 학교 진로체험 숙제로 수녀원을 찾아갔다. 친구들이 경찰관, 요리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나는 성가소비녀회 수녀원에서 수녀님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어린 내가 무엇이 그렇게 간절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을까. 그때의 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성당이 좋았고, 수녀님이 좋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는 삶이 맑고 따뜻해 보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덕분에 성당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성당은 내게 의무의 공간이 아니라 놀이터였고, 쉼터였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이었다. 복사와 반주, 성가대, 어린이 미사, 교리, 성지로 떠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움이었다. 새벽미사에 가고 싶어 졸린 부모님을 깨우곤 했다. 미사가 끝나면 함께 순댓국을 먹으며 웃던 시간까지도 내게는 신앙의 일부였다.

이 모든 시간은 결국,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신앙이라기보다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것이었다. 부모님과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은 내 영혼을 지켜 준 울타리였다. 내 신앙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기쁨을 먼저 배운 기억 위에서 자라났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달리고 기가 꺾인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말씀처럼,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간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어린 나를 품어 주신 하느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게도 좋은 목자들을 보내 주셨다는 사실로 이어졌다.

그 무렵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았던 분은 ‘소화 데레사 성녀’였다. 거대한 업적보다 작은 사랑을 귀히 여긴 사람이다. “사랑을 위해 핀 한 개를 줌은 것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어린 내 마음을 오래 붙들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희생과 기도로도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작은 길’이 와 닿았다. 나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때부터 작은 ‘기도노트’

를 만들어 하루를 마치면 예수님께 일기처럼 마음을 들려드렸다. 어린 마음의 기도였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시절의 나는 이미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찾아간 ‘수녀원’에서 나는 말 그대로 꿈같은 하루를 보냈다. 수녀복을 입어보고, 수녀님들이 지내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종신서원의 과정을 체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소피아 수녀님이 빌려주신 종신서원 반지가 내 손가락에 꼭 맞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일기에는 “수녀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내 꿈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꾸밈없는 기쁨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라면서 내가 걸어갈 성소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다. 어린 시절처럼 수녀님이라는 한 모습만을 꿈꾸지는 않게 되었지만,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 주신 성소의 씨앗은 다른 방식으로 자라고 있었다. 소화 데레사가 교회의 심장 안에서 사랑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듯, 나 역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사랑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 내가 바라는 삶도 결국 사랑받은 사람이 다시 사랑을 건네는 길로 이어져 있다. 나는 먼저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내 안의 흔들림을 평화로 바꾸어 주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다시 어린 날의 나를 떠올린다. 그때의 어린 나는 하느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불러 주신 아이였다. 그 모든 순간은 은총의 자리였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사랑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언젠가 누군가에게도 성당과 같은 울타리와 쉼, 위로가 되어 주는 삶으로.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 주신 작은 꽃 한 송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피워 내기를 조용히 기도한다. ☺

주예은 스텔라 _ 호원동 성당

평범한 일상이

몽클한 일상으로 바뀌는 기적

“감사해요.” 종교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제가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평범한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남편과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웃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의 지인들도 친해졌는데 모두 신자였습니다. 거의 2년을 알고 지내면서 좋은 사람들이라, 바른 사람들이라라는 생각했지만, 성당에 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가끔 지나가는 말로 같이 다니면 좋겠다고는 하셨지만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의 많은 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들과 다른었던 어느 날. 뒤에서 들려오는 이웃 사장님의 “감사해요.”라는 한마디.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날은 뭔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저분은 왜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저분은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나는 왜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분은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우시는 분이었는데, 저랑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있는 일이 많아서 종종 무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동을 재밌게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표정이 무섭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 중간에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고마운데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랑 너무나도 다른 그분이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감사해요’라는 말이 그날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신자가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숙고 후에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반겨주셨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모님은 저에게 ‘감사해요’라는 말로 충격을 주신 이웃 사장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이 성경 구절이 바로 대모님이 저에게 보여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가 된 후로는 별생각 없이 성당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사 중에는 다른 분들 하는 대로 일어서고 앉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성당에 다닌 지 4년 정도가 지나자 미사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사를 하고 있으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거창하지도 않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제 마음을 몽클하게 만듭니다. 이름을 불러 주니 꽃이 되었다는 시구처럼 ‘보나~’라고 불러주는 자매님과 신부님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밥 먹었어?’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 지인들. ‘보나보나 이제 보나’라며 장난을 거는 개구진 형제님. 예전에는 사소하게 넘기던 말들이 이제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퇴근길에 보이는 멋진 노을을 보면 전에는 그냥 ‘멋지다.’ 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멋진 노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얼굴 표정이 처음 봤을 때보다 밝아졌다는 말을 해 준 자매님도 계셔서 무척 기쁩니다. 미사를 하며 일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좋은 순간들을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일주일을 주님에게 의탁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잘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는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자가 된 지금은 평범함 속에서 행복과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소한 일들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게 된 것은 다 주님과 주님이 주신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입니다. 행복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듯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주님이 주신 행복들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이지숙 보나 _ 야당맑은연못 성당

평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미사 때마다 들었던 이 말을 예전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란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앞만 보고 달렸고, 쉬는 날도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불안했습니다. 행복은 늘 다음 목표를 이루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표를 하나 이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참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을 먼저 떠올렸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제 실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느님께서 아주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느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탈출기에서는 광야를 걷는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복음에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죄인, 세상에서 외면받던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묵상하며 문득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질문 하나가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묻지 않으셨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이제는 “하느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를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봉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합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품어 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저는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어요.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며, 화합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성공만 바라보던 제가 행복을 배우게 되었고, 제 자신을 몰아붙이던 제가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받은 평화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제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평화와 화합입니다. ☸

심혜인 가브리엘라 _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구 소식

한마음 사계 피정 - 12월(대침묵 피정)

주제 바오로 사도와 함께 걷는 신앙 여정

강사 김효준 신부

일시 12/4(금)~6(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 집

피정비 1인 20만원(1인 1실)

문의 선교사목국 031-850-1449

신청 ▶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7(토) 14시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문의 031-850-1468 성소국

2027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일시 (수·금) 14시~16:10 [주2회]

장소 신앙교육원 일산분원 (백석동 성당)

과정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 한 학기 4과목 12주간 수업

과목 신·구약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접수 선착순 100명 모집 (예약금5만원)

회비 한학기 40만원 (분납가능)

문의 031-850-1545~6, 010-5578-4898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엠마오반 -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미사

일시 매월 셋째 주 (토) 15시

장소 신곡1동 성당 지하 1층 소강당

문의 010-9955-3538

제41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시 10/16(금) 19시~18(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신청 ▶



청년 만남의 장 'Solo Church'

일시 11/14(토) 13시~15(주일) 14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미혼 청년 40명 (남녀 각 20명) (종교 무관)

문의 031-850-1459 또는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제2회 의정부교구 4지구 연합성가제

일시 10/19(월) 20시

장소 덕정 성당

찬조 출연 4지구 사제단, 성 세실리아 합창단

[담화] 제59회 군인 주일

제59회 군인 주일을 맞아, 군종교구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10월 고양 - 파주 평화지기 월례미사

일시: 10/15(목) 20시 [매월 셋째 목요일]

장소: 백석동 성당 2층 대성당

대상: 평화사도, 민족화해분과장·위원, 평화와 환경 보존에 관심있는 교우 누구나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의정부교구 헤세드 청년 성령주말피정

일시: 10/24~25(토, 주일)

장소: 봉사회교육관(가능동) ※참가비: 10만원

대상: 만 45세 이하 모든 청년

문의: 010-5515-5548 청년회장

3지구 매월 셋째(토) 무료 치유피정

일시: 10/17(토) 11시~16시, 갈현동 성당 지하강당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점심무료제공)

강사: 이창진 신부 전/삼성산성지 성령봉사회지도

문의: 010-2435-3737 연신내역 7번출구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하느님, 사랑, 나(힐링 피정): 10/29(목)~11/1(주일)

성경완독: 11/13(금)~21(토), 12/4(금)~1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2026 성령새신 전국대회

일시: 10/31(토) 9시~17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시릴 존(CHARIS 위원)

미사: 김윤희 루카 주교(전 춘천교구장)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대상: 모든 교우

문의: 02-777-3211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치유의 숲길: 11/21(토)~23(월), 12/4(금)~6(주일)

추차도 성지순례: 11/26(목)~29(주일), 12/7(월)~9(수)

동백꽃길: 1/15(금)~17(주일), 1/24(주일)~26(화)

한라산 영실산행:

1/29(금)~31(주일), 2/19(금)~21(주일)

산들말씀피정: 2/26(금)~28(주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길음동 성당 아가페성령기도회 치유말씀특강

일시: 매주(수) 18시~20:30, 소성전(B1, 주차가능)

10/14 이상기 회장, 10/21 김현우 신부

문의: 010-9248-8151(4호선 길음역 3번출구)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0/1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요한 크리소스토모(요한금구))

강사: 황인수 이나시오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논현동분원 원장)

문의: 010-2127-00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섬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오름·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연말연시피정(한라산): 12/31(목)~1/3(주일)

추차도포함 성지순례: 11/5(목)~7(토)

역새·올레길 포함: 11/1(주일)~3(화),

11/13(금)~15(주일), 11/17(화)~19(목),

11/21(토)~23(월), 12/1(화)~3(목),

12/5(토)~7(월), 12/11(금)~13(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본당 제 단체를 위한 1일피정 및 대관 안내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고양시 소재)

대상: 각 본당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33일간의 묵상회

일시: 10/27~12/1 매주(화) [6주간]

장소: 의정부 녹양동 성당

회비: 2만원(교재 별도)

교재: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문의: 010-6303-8515



교육 · 모집 ▶▶

'상처치유' 무료 영성특강 - 마지스2027주관

예수회 마지스2027코리아 영성특강

일시: 10/24(토) 14시~17시

장소: 예수회센터 3층 성당(마포구 서강대길 19)

주제: 2강)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세 단계

강사: 최준열 다미아노 신부

회비: 무료 / 문의: 02-3276-7777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수강료: 1만원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4길 14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일시: 10/26(월)~11/20(금) 17시까지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gscl.catholic.ac.kr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

진학상담,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원서 접수: 10/26(월)~11/8(주일)

면접: 11/27(금), 18:30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 02-2164-4176

홈페이지: <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Scuola di ICON 이콘학교

양희진 작가와 함께하는 이콘 코스

화요일: 10/20부터 14~17시 [10회]

토요일: 10/24부터 14~17시, 17~21시 [10회]

장소: 바오로딸 혜화나무 이콘교실

회비: 50만원(재료비 포함)

문의 및 신청: 양희진 010-2898-1394(문자)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피나음악원: 매주(금) 10시

문의: 010-9842-8818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V

주제: AI 시대는 그리스도 인간학의 위기인가 /

윤동주, 별빛 아래에서 신앙을 묻다 /

동양고전으로 읽는 그리스도인의 삶 /

종교개혁 시대, 책과 음악과 신앙

강사: 송용민 신부, 최성준 신부, 유성호, 박찬이

방식: 녹화동영상 강의(10/29~11/19,

매주(목) 접속링크 발송) / 청년할인

문의: 02-2135-9398 한국CLC,

<http://www.kclc.or.kr>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묵주기도 50단 모임

일시: 10/19(월), 26(월)

시간: 12시~16:30

장소: 의정부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지하1층 대회의실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살레시오 수도회	상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채용

분야: 행정 사무(번역)(정규직 전환 가능)
제출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마감: 10/16(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문의: 이메일 mano@cbck.kr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서강대학교 [슬기로운 영성생활II]

주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일시: 10/19(월) 14시~16시 (강의와 미사)
강사: 예수회 송봉모 토마스 SJ 신부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문의: 02-705-4711 (무료, 사전신청 필요x)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1/2(토)~3(주일), 2차: 2/19(금)~2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선착순) / 회비: 11만원(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안내 · 기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예약접수**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매일 11시 미사 봉헌)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치: 하늘의문 성당(인천 검단구 당하동764-1)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haneul.caincheon.or.kr)
문의: 하늘의문 성당 032-765-7251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https://blog.naver.com/ggreen1004>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2(화)~12/26(토) 성탄 필리핀(195만원)
27년 2/2(화)~9(화) 멕시코 과달루페(565만원)
27년 3/6(토)~16(화)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495만원)
27년 3/6(토)~15(월) 영국, 아일랜드(610만원)
신청 및 문의: 02-2281-9070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4일 엠마오

27년 3/30(화) / 비용: 599만원 (+2,500유로)
루르드 3박, 파티마 2박 포함 / 가톨릭 트래블
문의: 010-5464-0207, ca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1/2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2/1(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5(화) 홍콩, 마카오(4일)
1/19(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2/5(금) 말레이시아(페낭, 말라카,
쿠알라룸푸르(5일)-설연휴
2/6(토)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설연휴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대전교구에서 위탁운영
치매전문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성사 생활 가능(사제, 수녀 근무)
문의: 041-950-1008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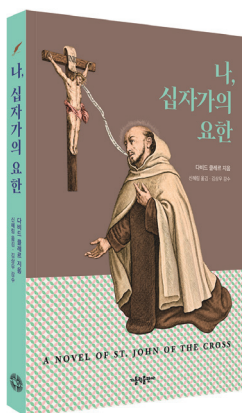
11/16(월) 베트남 라방성모성지순례 5일
27년 1/11(월) 대만 성지순례 4일
27년 1/18(월) 일본 나가사키 순례 4일
27년 3/30(화) 대만 가오슝 순례 5일
27년 4/18(주일) 일본 아키타 순례 4일
문의: 김명운 베네딕도 010-5909-5997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1/2(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51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570만원)
12/9(수)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0일, 대한항공)
27년 1/5(화) 유럽4국 성모님발현지(12일, 대한항공)
1/23(토) 스페인남부와 포르투갈(12일, 585만원)
2/15(월) 프랑스 성모성지와 바르셀로나
(12일, 61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30(월) 홍콩 심천 마카오(4일)
1/11(월) 이탈리아 파티마 스페인(12일)
1/12(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12일)
1/18(월) 베트남 남부(사이공, 붕파우) (5일)
1/19(화) 이탈리아 일주(11일, 595만원)
1/19(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다비드 클레르 지음
신혜림 옮김 | 188면
14,000원 | 가톨릭출판사
문의 | 02-6365-1855(편집)
edit@catholicbook.kr

나, 십자가의 요한

어둔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성 요한이 들려주는 사랑의 여정

사랑, 그것은 궁극의 진리이며 여정의 끝입니다.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실체입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그것을 그저 예감하기만 했다면, 성 안드레아 신학원에서 보낸 밤들과 아가를 통해서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라고 아가에 쓰여 있지요. 거기에 제 소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훗날 제가 글로써 전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 49p. ‘1부 자유’ 중에서

도/서/소/개

제59회 군인 주일
2026년 10월 11일

군인들이기 복음을

내 일도 내 일같이 하고,
Work hard for yourself and

ARS 후원
060 - 700 - 0105

(전화 한 통으로 '1만원'이
일시 후원됩니다.)



한국 가톨릭 군종후원회
Korean Catholic Chaplain Support Association

후원문의 : 02-776-0457



천주교군종교구

<http://www.gunjong.or.kr> 가톨릭 군종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7: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화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7: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5일 데레사: 권혁초, 류채형

공 지 / 단 체

- 사목협의회의
일 시: 10월 18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군인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교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전교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공 지 / 단 체

- 위령의 날 합동 위령 미사 접수

일 시: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11월 2일(월)은 위령의 날입니다. 이날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봉헌은 10월 28일 수요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한 요셉 주임신부님 레지오 특강 및 미사

일 시: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행주성당
능곡성당 꾸리아 소속 레지오 특강이 있습니다.
본당 교우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이 참석하시어 강의와 미사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9/28 - 10/4)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7건 410,000원
주일헌금 1,001,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헌금

구해경 20,000원 조대현 100,000원
오운서 100,000원 익명 10,000원

화답송

